THE BRIDGE COMPANY

# HEYJI BAK

박 혜 지 타 악 기 리 사 이 틀

THE BRIDGE COMPANY

THE BRIDGE COMPANY

HYEJI BAK PERCUSSION RECITAL

# HYEJI BAK

## 박 혜 지 타 악 기 리 사 이 틀

**2022. 11. 26SAT 8:00PM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수십, 수백 가지의 악기를 다 잘 다뤄야 하고, 무거운 것도 번쩍 번쩍 잘 들어야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고, 소리도 잘 질러야하고, 춤도 잘 춰야 하고, 연기도 잘 해야 하고, 노래도 잘 해야 하는 게 타악기 연주자야?"*

대학 시절, 생각보다 더 광대한 타악기의 세계에 당황스러워서, 타악기를 전공하는 친구들과 함께 쏟아내던 불평이었다. 악기 연주보다 노래나 춤, 소리 지르기, 연기 등을 연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타악기란 대체 무엇일까?' 고뇌에 빠지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불평들이 내가 타악기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악기 없이 몸을 사용해서 연주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열정적으로 웅장한 소리를 내기도 하며,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내 내면 가장 깊숙한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도 한다.

**나 자신 조차도 잘 모르는 박혜지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타악기였다.**

그 어떤 악기의 연주에서도 볼 수 없는, 오로지 타악기로만 가능한 무대, 타악기 연주자만이 가능한 무대를 바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박혜지의 매력과 타악기의 다양한 매력을 잘 나타내줄 수 있는, 특히 제가 애정하는 곡들을 골라 이번 독주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타악기는 원래도 체력 소모가 큰 악기인데, 이번 독주회는 특별히 더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곡들로 구성 했기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연주인데요. 앞으로 보여 드릴 수많은 연주 중 가장 강한 체력으로 보여 드릴 수 있는 연주가 바로 오늘이기에, 조금 무모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더욱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함께 연주에 참여해 주세요!

목소리가 악기가 되고, 소리가 아닌 시각이 음악이 되는, 가장 큰 소리와 가장 작은 소리가 공존하는 타악기의 세계, 그 열정적인 세계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2,3번째 곡 그리고 6, 7, 8번째 곡은 박수 없이 이어서 연주됩니다.

**글 |** 퍼커셔니스트 박혜지

©AL Lechat

**리 하워드 스티븐스** — 7’
Leigh Howard Stevens
**마림바 독주를 위한 “리드믹 카프리스”**
“Rhythmic Caprice” for Solo Marimba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 8’
Iannis Xenakis
**타악기 독주를 위한 “반동 A”**
“Rebonds A” for Solo Percussion

**클로드 드뷔시** — 4’
Claude Debussy
**비브라폰과 마림바를 위한 “달빛”**
“Clair de Lune” for Vibraphone and Marimba
Vibraphone. 손민규

**리 하워드 스티븐스** — 10’
Anders Koppel
**마림바 독주를 위한 “리드믹 카프리스”**
“Toccata” for Vibraphone and Marimba
Vibraphone. 손민규

*Intermission*

**벤 왈룬드** — 11’
Ben Wahlund
**비브라폰을 위한 “냉혹한 자본주의 그리고 프리드먼씨가 구글이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된 날”**
“Hard-Boiled Capitalism and The day Mr. Friedman Noticed Google is a Verb” for Vibraphone

**이정혜** — 10’
Junghae Lee
**타악기 독주를 위한 “북”**
“BUK” for Percussion Solo

**케이시 캔겔로시** — 10’
Casey Cangelosi
**독주 연주자와 녹음 재생을 위한 “베드 터치”**
“Bad Touch” for Solo Performer and Playback

**에마뉘엘 세주네** — 3’
Emmanuel Séjourné
**마림바, 비브라폰, 그리고 녹음 재생을 위한 “매력” 짧은 버전**
“Attraction” Short Version For Marimba, Vibraphone and Playback

퍼커셔니스트

# 박혜지

퍼커셔니스트 박혜지는 10년만에 개최된 제네바 국제 콩쿠르 타악기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 및 관중상, 청소년 관중상, 제네바 학생 관중상, 야마하 영아티스트상, 쥬씨 콘서트 상, 버그라울트 마림바 상까지 제네바 콩쿠르 역사상 최초로 6개 부문의 모든 특별상을 석권하며 관객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퍼커셔니스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벨기에 국제 마림바 콩쿠르에서도 1위 및 4개의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슈파르다 클래식 어워드 우승, 미국 시카고 국제 타악기 콩쿠르 3위, 독일 뮌헨 어거스트-에버딩 타악기 콩쿠르 2위를 수상하였다.

박혜지는 롯데콘서트홀에서 오스모 벤스케가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페테르 외트뵈시의 '스피킹 드럼'을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 바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이클 자렐의 타악기 콘체르토를 스위스 초연으로 연주하며 국•내외를 오가며 타악기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줄리앙 르로아, 리 비아오, 이재준, 김홍식, 정나라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콘스탄츠 남서독일필하모니, 쿼들리벳 앙상블, 서울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라, 대구시립교향악단,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 대구영재유스오케스트라 등 유럽과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오고 있다.

독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2022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타악기 회사 중 하나인 말렛텍의 아티스트로 선정, 세계적인 퍼커셔니스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레조 데르 페스티벌과 프랑스 페리고르 누아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프랑스 포 타악기 페스티벌, 크로아티아 국제 타악기 페스티벌 IPEW, 콜베르그 50주년 타악기 페스티벌, 덴마크 왕립 음악원에서의 퍼커션 펄스 2020 초청연주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성당에서의 리사이틀과 스위스 쥬씨,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의 초청 독주회는 물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인춘아트홀, 롯데콘서트홀, 수성아트피아,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국내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오케스트라 협연과 리사이틀, 그리고 앙상블까지 다양한 연주활동으로 세계 여러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만15세에 타악기를 공부하기 시작한 박혜지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정희라, 최경환, Marta Klimasara를 사사했다.

Guest Percussionist **Minkyu Shon** 퍼커셔니스트 **손민규**

Yale University 대학원 전액 장학생 재학중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졸업
2022 17회 제주국제 관악 · 타악 콩쿠르 2위
2019 John F. Kennedy Center 연주
2019 Yellow Barn Music Festival 전면장학생
2016 연세대 콩쿠르 1위
2016 서울대 콩쿠르 1위
2012 이탈리아 PAS competition snare drum category A,B 3위

## 리 하워드 스티븐스 마림바 독주를 위한 "리드믹 카프리스"
## Leigh Howard Stevens "Rhythmic Caprice" for Solo Marimba

출생연도 : 1953 ~
작곡연도 : 1989

오늘의 첫 곡은 마림바 독주를 위한 곡이다. 작품이 악기개량에 영향을 주면, 그 개량된 악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곡가는 또 다른 새로운 주법을 적용해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는 점에서 마림바라는 악기는 한 마디로 정의하자며 '현재진행형 악기'라 할 수 있다.

작곡가 스티븐스는 한 손에 말렛(Mallet)을 두 개씩 잡아 모두 네 개의 말렛으로 연주하는 '포 말렛 주법(Four mallet technique)' 중 본인의 이름을 딴 '스티븐스 그립(Stevens grip)'을 고안한 마림바 연주자이다. 뿐만 아니라 마림바로부터 새로운 음색을 얻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 마림바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음색들을 도출해 냈다.

그 방법에는 말렛의 손잡이 부분인 나무 소재의 샤프트(Shaft)를 이용해 마림바의 건반에 해당하는 톤바(Tone bar)의 끝부분을 연주하는 '스틱클릭(Stickclick)', 말렛의 헤드와 샤프트 부분을 동시에 톤바에 두드려서 연주하는 '마림샷(Marimshot)', 그리고 말렛의 샤프트 부분을 피아노의 검은 건반에 해당하는 마림바 톤바인 액시덴탈 톤바(Accidental tone bar) 위에 가로로 두고 여러 개의 인접해 있는 음의 다발인 클러스터(Cluster) 형태로 동시에 타건하는 '스티븐스 스플래시(Stevens splash)' 등이 있다. 작곡가는 "col legno"(이탈리아어로 "나무로써"라는 뜻) 효과를 기반으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자신이 개발한 이 세 가지 특이한 특수주법을 사용하여 음색의 다양성을 이 곡에 담았다. 잦은 변박과 양 손 간의 분할된 폴리리듬(polyrhythm)은 연주자로 하여금 뛰어난 기량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음악을 듣는 청중들은 음악적 긴장감과 음색적 다채로움을 경험한다.

스티븐슨은 1953년 미국 뉴저지 출신의 마림바 연주자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건반 타악기의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말렛테크(Malletech)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이 곡은 그가 마림바를 위해 작곡한 첫 작품으로, 곡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교적이면서도 일정한 틀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율동적인 기상곡이다. 이 곡의 악보는 그가 설립한 마림바 전문 출판사인 Marimba Productions라는 회사의 Keyboard Percussion Publications라는 음악출판사를 통해 1989년에 출판되었다.

## 이안니스 크세나키스 타악기 독주를 위한 "반동 A"
## Iannis Xenakis "Rebonds A" for Solo Percussion

출생연도 : 1922 ~ 2001
작곡연도 : 1987년 - 1988

1922년 루마니아 출생의 그리스 작곡가이자 건축가 크세나키스는 수학적 확률이론, 건축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음악적으로 연계하여 사용한 작곡가로서, 음악의 중심 사상은 수학적인 논리의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 작곡가였다. 그의 작품들은 마치 세밀한 건축학적 설계도면을 보는 듯하며, 음향적인 청각적 면에서나 악보상의 시각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그가 작곡한 <반동(Rebonds)>은 "Rebonds A"와 "Rebonds B"라고 불리는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악장의 순서는 정해진 바 없이 연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악장 간에는 중단 없이 연주되는 곡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Rebonds A" 악장만 연주된다. 두 대의 봉고, 세 대의 톰톰, 그리고 두 대의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다중타악기(multiple percussion)'를 위한 독주 연주이다.

음정이 없는 타악기 구성이지만, 고음, 중음, 저음 사이의 균형감과 다양한 타악기 음색의 대조를 느낄 수 있다. 연주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대의 타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복잡한 리듬과 빈번히 바뀌는 악센트의 위치로 인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고난도의 곡이다. 타악기 독주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는, 다중타악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곡가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로 이 작품은 1987년에서 1988년 사이에 작곡되었으며, 프랑스의 타악기 연주자인 실비오 구알다(Sylvio Gualda)에게 헌정되었다. 1988년 7월 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로마 유로파 페스티벌(Roma Europa Festival)에서 구알다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악보 출판은 패트릭 부탱(Patrick Butin)에 의해 개정된 판본으로 프랑스의 악보 출판사인 에디션 살라베르(Éditions Salabert)를 통해 1991년에 출판되었다.

## 클로드 드뷔시 비브라폰과 마림바를 위한 "달빛"
## Claude Debussy "Clair de lune" for Vibraphone and Marimba

출생연도 : 1862 ~ 1918
작곡연도 : 1890

마림바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타악기들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말렛의 비중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말렛은 헤드와 샤프트로 이뤄져 있는데, 헤드의 크기와 재질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낸다. 같은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어떤 재질의 말렛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의 음량과 음색이 달라진다. 작곡가가 악보에 '단단한(Hard)' '중간의(Medium)' '부드러운(Soft)'으로 말렛 헤드의 종류를 기보해 놓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의 말렛으로 연주할지는 연주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프랑스의 작곡가 드뷔시가 작곡한 <달빛>은 그의 초기 피아노곡집인 <베르가마스크 모음곡(Suite bergamasque)> 중에서 제3곡이 원곡인데, 1890년에 작곡될 당시의 제목은 <감상적인 산책(Promenade sentimentale)>이였다. 오늘 연주에서는 비브라폰과 마림바를 위한 이중주로 연주되는데, 연주자들이 어떤 종류의 말렛을 선택하여 사용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번 연주에서 박혜지와 함께 이중주 무대에 올라 비브라폰을 연주할 손민규는 올해에 17회째를 맞은 제주국제관악·타악콩쿠르에서 타악기 부문 2위를 수상한 실력파 연주자이다.

금속재 톤바로 건반이 구성되어 있고, 피아노와 마찬가지로 음에 여음(울림의 길이)을 조절하는 페달이 달려있는 비브라폰이 선율을 연주한다. 박혜지가 연주할 마림바는 음악의 색채감을 더해주는 화성을 채우는데, 목재로 만들어진 톤바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음색을 부드러운 소재의 말렛으로 연주한다. 이러한 포근한 색채감에 더해 원곡에 기보된 펼침 화음을 위한 아르페지오(Arpeggio) 주법을 연주하여 곡의 화성을 풍성하게 만든다. 또한 여러 개의 말렛을 이용해 두 개 이상의 톤바를 동시에 두드리는 마림바와 비브라폰의 화음(Chord) 주법도 엿볼 수 있다. 톤바가 금속재인 비브라폰과 목재인 마림바의 이중주에서 느낄 수 있는 대비되는 음색에 집중해 보기 바란다.

원곡이 수록되어 있는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1890년에 작곡되었으며, 몇 차례 개작을 거쳐 15년이 지난 뒤인 1905년에 프랑스의 악보출판사인 프로몽(E. Fromont)에서 출판되었다.

## 안데르스 코펠 비브라폰과 마림바를 위한 "토카타"
## Anders Koppel "Toccata" for Vibraphone and Marimba

출생연도 : 1947 ~
작곡연도 : 1990

모르텐 프리스(Morten Friis)와 우페 사베리(Uffe Savery)로 구성된 덴마크의 전자 타악 듀오 그룹인 '사프리 듀오(Safri Duo)'는 영국의 독립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챤도스(Chandos Records)라는 음반사를 통해 녹음될 곡을 위해 작곡가 안데르스 코펠(Anders Koppel)에게 새로운 작품을 의뢰한다. 코펠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여 왔는데, 그의 이전 작품에는 재즈, 록, 영화음악 등이 포함된다. 다방면에 걸친 그의 이러한 음악적 스타일은 오늘 연주할 <토카타>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 작품은 두 명의 타악기 연주자를 위한 곡으로 재즈, 탱고, 왈츠,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영역의 소리를 끌어들인다. 그 결과 하나의 흥미진진한 음악 안에 함께 뭉쳐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마치 만화경 속을 들여다보는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이 곡은 율동적인 성격의 주제가 여러 번 되풀이 되는 동안에 다른 선율이 여러 가지로 중간 중간에 삽입되는 형식인 론도처럼 전개되는 작품이다. 서로 공간의 여유를 주는가 싶다가도 때로는 서로 치밀하게 맞물리는 연주가 긴장감과 함께 듣는 재미를 전달해 준다. 이 곡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리드미컬한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질감(Musical Texture)'은 음악의 여러 레이어 즉 템포, 멜로디, 화성적 소재가 하나의 작품으로 결합되어 한 곡의 소리의 전반적인 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이중주곡은 연주자들의 기술적 능력을 끌어내는 특정한 '율동적인 질감들(rhythmic textures)'을 만들기 위해 비브라폰과 마림바라는 두 목소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음악적 질감들이 결합되어 전체 사운드를 생성하는데, 이를 위해 다성부 음악 내 모든 성부가 같거나 유사하게 진행하는 '동형리듬(Homorhythm)', 서로 독립적이거나 대조적인 리듬이 2성부 이상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리듬(Polyrhythm)', 하나의 리듬이 2성부 이상에서 공유되어 그 리듬이 교대로 울리고 다른 성부는 쉬는 형태로 딸꾹질 효과와 유사한 '호켓(Hocket)' 기법의 방식, 그리고 박절적

(계속)

긴장감을 유발하는 '헤미올라리듬(Hemiolarhythm)' 등을 사용하여 음악의 정상적인 흐름을 강화하거나 방해한다. 작곡가가 활용하는 음의 강세, 쉼표, 박절의 변화는 쉴 새 없는 긴장감을 유발시켜, 음악을 듣는 청중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비르투오소적인 작품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947년에 태어난 작곡가 안데르스 코펠은 1967년에 결성된 사이키델릭 록 밴드인 새비지 로즈(Savage Rose)의 창립 멤버 출신으로, 밴드를 그만 둔 후에는 영화음악, 발레음악, 연극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곡은 1990년에 작곡되어 덴마크의 전자 타악 듀오 그룹인 '사프리 듀오'에게 헌정되었으며, 악보는 노르웨이 악보출판사인 노스크 음악출판사(Norsk Musikforlag)에서 1995년에 출판되었다.

## 벤 왈룬드

## Ben Wahlund

## 비브라폰을 위한 "냉혹한 자본주의 그리고 프리드먼씨가 구글이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된 날"

## "Hard-Boiled Capitalism and The Day Mr. Friedman Noticed Google is a Verb" for Vibraphone

출생연도 : 1977 ~
작곡연도 : 2008

이 곡은 '프리드먼씨가 구글이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라는 흥미로운 부제가 붙어 있는 곡이다. 부제에 나오는 '프리드먼'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였던 두 명의 경제학자에게서 나왔다. 작곡가 왈룬드는 2006년 여름에 두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이 그것이다.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였던 두 명의 프리드먼이 주창하는 '자유 시장경제'는 긍정적인 효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 또한 야기 시켰다. 이 독주곡은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가을에 완성되었으며, 작곡가는 이 작품에 <냉혹한 자본주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비브라폰의 톤바 밑에 달려 있는 공명관(Resonator) 위에는 회전하는 원반 모양의 팬(Fan)이 달려 있는데, 전기로 연결된 모터에 의해 팬이 빠르게 회전하며 공명관을 여닫으면 비브라폰 특유의 비브라토(vibrato) 효과를 만든다. 작곡가는 이 작품에서 팬을 회전하는 모터의 속도는 가능하면 가장 느리게 작동시키라고 연주자에게 요구한다. 연주자에 따라서는 이 곡을 연주할 때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브라폰은 톤바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 톤바의 울림이 길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댐퍼와 페달 시스템이 있다. 페달을 밟으면 톤바가 댐퍼에서 떨어져 진동이 방해받지 않아 음이 지속되며, 페달을 밟지 않으면 톤바가 댐퍼에 닿은 상태로 있어서 음이 멈춘다. 작곡가는 가장 낮은 F- sharp, 높은 D, E-flat, E, 그리고 F음에 해당하는 톤바와 댐퍼 사이에 못(Peg)을 설치하라고 악보에 요구하고 있는데, 박혜지는 못 대신에 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톤바와 댐퍼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페달을 안 밟아도 특정 톤바가 계속 울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곡에는 톤바를 타격 후 말렛을 들어 올리지 않고 말렛의 헤드가 톤바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여 음이 짧게 끊겨서 연주되는 세코(Secco) 효과가 있는 '데드 스트로크(Dead stroke)' 연주법도 사용된다. 이 효과는 마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어딘가로 구조신호를 보내는 모스부호(Morse code)와도 같이 느껴진다.

미국의 작곡가이며, 교육자, 그리고 연주자인 왈룬드는 음악뿐만 아니라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인물이다. 이 작품은 미국의 타악기 연주자 마이클 트루즈델(Michael Truesdell)의 위촉으로 작곡되었다. 세계 초연은 2009년에 낸시 젤츠먼 페스티벌(Nancy Zeltsman Festival)에서 있었던 트루즈델의 리사이틀에서 있었다. 악보는 미국의 타악기 레퍼토리 전문 악보출판사인 바초비치(Bachovich Music Publications)를 통해 2012년에 출판되었다.

## 이정혜 타악기 독주를 위한 "북"
## Junghae Lee "BUK" for Percussion Solo

출생연도 : 1964 ~
작곡연도 : 1996

판놀음이란 널찍한 마당을 놀이판 삼아 연극·곡예·음악·춤 따위의 놀음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놀음에는 흔히 '판'자를 붙이는데, 줄타기는 판줄, 춤은 판춤, 굿(農樂)은 판굿, 염불은 판염불, 소리는 판소리라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북으로 놀음하는 '판고(鼓)'라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고려 시대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인 고려 속요 <청산별곡>의 운율을 분석하여 기악적 리듬 패턴으로 변형시킨 뒤 곡에 적용시킨 작품인데, 한국어의 운율이 작품 안에서 리듬과 소리로 표현되도록 작곡하였다. 타악기 주자는 노래나 허밍(humming)을 하고, 말을 속삭이고, 노래와 말의 중간 정도의 뉘앙스로 발성을 한다. 또한 이 곡에 사용된 <청산별곡>의 가사는 중세에 사용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연주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구음(口吟)할 수 있게 발음 기호로 표기하였다.

악보에는 악기 연주 주법에 대한 기술서도 상세히 적혀 있다. 손으로 연주하거나 손가락으로 연주하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말렛이나 채를 사용하고, 악기의 특정한 부분을 연주하는 등 의도하는 소리를 얻기 위해 작곡가는 악보에 이를 자세히 기재하였다.

이 작품은 원래 '같은 종류에 속하는 서로 다른 크기의 일곱 개의 북(Drum)과 크기가 큰 한 대의 탐탐(TamTam)'을 위한 작품이다. 이번 연주에서 박혜지는 오로지 한 대의 소리북으로만 연주하는데, 작곡가가 요구하는 여러 음의 높낮이를 얻기 위해서 소리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타점의 위치들을 두드려서 이 모든 것을 구현해 낸다.

이 작품에서 타악기 독주자는 판소리에서 조연(助演)에 불과했던 고수(鼓手)의 역할을 넘어선다. '아니리'를 읊조리는 소리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니리'를 모방한 북장단을 연주하며 고수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 작품은 한 마디로 현대적인 '소리북 병창(竝唱)'을 가장해 질펀하게 한 판 즐기는 '소리북 굿판'이다.

작곡가 이정혜는 1964년 일본 동경 출생의 한국 작곡가이며, 1991년 스위스 바젤(Basel)로 이주한 후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작품은 1996년 작곡되었으며, 이듬해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에서 주최한 세계음악제(World Music Days)에서 초연되었다. 악보는 작곡가(jlee@neuemusik.ch)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케이시 캔겔로시 독주 연주자와 녹음 재생을 위한 "베드 터치"
## Casey Cangelosi "Bad Touch" for Solo Performer and Playback

출생연도 : 1982 ~
작곡연도 : 2013

이 작품은 음악, 조명, 팬터마임(Pantomime) 등이 치밀하게 어우러진 하나의 종합예술공연이다. 미리 녹음된 대화 목소리, 효과음, 그리고 음악 등의 음향을 재생하는 플레이 백(Play back)을 기반으로, 준비된 음향과 음악에 맞춰서 연주자는 몸으로 동작을 표현해서 리듬을 맞추는 '바디 퍼커션(Body percussion)'을 행한다. 연주자는 풋 스위치(Foot switch)를 사용하여 조명을 제어하고, 자유로운 두 손은 팬터마임에 가까운 동작을 시연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시각적 다중 타악(Visual multiple percussion)' 퍼포먼스를 행함으로써 관객들은 이 공연을 통해 '연극적 경험(theatrical experience)'을 얻는다.

이 작품은 크게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섹션 A(The Touched)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플레이 백이 시작되다가 연주자의 발로 제어되는 조명의 번쩍임이 시각적으로 강조된다. 섹션 B(The Antenna)에서 연주자는 양 옆으로 스틱을 왔다갔다 움직이는 진자운동(cradle motion)으로 플레이 백을 동기화(Synchronization)하기 시작한다. 진자운동으로 생기는 스틱이 그리는 포물선의 양 끝점은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안테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섹션 C(The Mixed Self)는 가장 활발한 부분이며, 네 섹션 중에서 가장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 연주자는 복잡한 리듬 패턴에 정확히 맞춰진 많은 수의 동작을 팬터마임 해야 하는데 한 편의 '묘기'에 가깝다. 클라이맥스가 가까워지면 복잡한 '바디 퍼커션' 동작을 하는 상황이 다소 긴장된다. 차분하고 신비로운 섹션 D(The Constellations)는 바흐의 <C장조 전주곡>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다. 바흐의 전주곡은 우주를 향한 보이저 1호(Voyager 1)에 실려 있는 90분 분량의 음악 트랙이 담긴 '황금레코드(Golden Record)'에 수록된 곡 중 하나이다.

(계속)

연주자는 이 전주곡을 배경으로 휴대용 LED 조명을 사용하여 물병자리(Aquarius)에서 염소자리(Capricorn)까지 12개의 별자리인 '조디악(Zodiac)'을 묘사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한다.

1982년 미국 태생의 타악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캔젤로시는 80여 곡의 타악기 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에서 약 40여 곡은 다른 타악기 주자들의 위촉으로 작곡되었다. 타악기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 중 한 명이다. 이 곡은 태국 출신의 타악기 주자인 파오푼 무 암나단(Paopun Mu Amnatham)의 위촉으로 2013년에 작곡되었으며 그에게 헌정되었다. 악보는 작곡가의 홈페이지(https://www.caseycangelosi.com/)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에마뉘엘 세주네 Emmanuel Séjourné

## 마림바, 비브라폰, 그리고 녹음 재생을 위한 "매력" 짧은 버전 "Attraction" Short Version For Marimba, Vibraphone and Playback

출생연도 : 1961 ~
작곡연도 : 2007
개작연도 : 2017

이 작품은 리듬감 넘치는 봉고(Bongo), 타블라(Tablā), 카혼(Cajón) 등과 비슷한 음색의 타악기 리듬 위에 시타르(Sitar)와 유사한 음색의 율동적인 선율이 오디오 반주에서 플레이 백 되고, 독주자는 플레이 백에 맞춰 마림바와 비브라폰을 연주한다. 이 곡은 연주시간 10분인 버전과 그보다 짧은 버전 이렇게 두 버전이 오디오 반주 CD와 함께 출판되어 있는데, 이번에 연주할 버전은 짧은 버전으로 연주 시간은 약 3분이다.

오디오 반주에서 나오는 짧은 인트로로 시작되는 이 곡은 빠른 하행의 마림바 연주에 이어서 두 음 이상을 동시에 타건하는 화음 주법으로 비브라폰과 마림바의 대비되는 색채감을 제시한다. 이 곡의 대부분의 기교는 마림바에서 이루어지는데, 16분음표에 가해지는 악센트로 인해 다채로운 리듬감을 부여한다. 중간 부분에 나오는 비브라폰의 선율은 섬세한 셋잇단음표(triplet)와 여섯잇단음표(sextuplet)로 채워져 있으며, 연주자는 싱코페이션(syncopation) 리듬이 가미된 마림바의 저음 화성 반주를 동시에 연주한다. 처음에 제시되었던 빠른 타건의 16분음표가 다시 등장한 후에 곡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는 한 박자에 네 개로 분할되는 16분음표가 3개씩 이음줄로 묶여 상행하는 음형으로 선율과 리듬적 절정을 만든다. 비브라폰이 화음 연주로 한 호흡을 주고 나면, 마림바는 하행하는 셋잇단음표로 곡의 종지(終止)를 향한다. 박혜지는 비브라폰 연주자인 개리 버튼(Gary Burton)이 1960년대에 고안한 '버튼 그립(Burton grip)' 포 말렛 주법으로 마림바와 비브라폰을 연주한다.

타악기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세주네는 1961년 프랑스 리모주(Limoges) 태생이다. 이 작품은 2007년 출판된 작곡가 본인의 작품인 <"Attraction" for violin, marimba and tape>을 기초로 해서 2017년에 개작한 곡이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타악기 연주자 크리스토프 시에첸(Christoph Sietzen)에게 헌정되었으며, 2017년 10월 22일 독일 쾰른 필하모니(Kölner Philharmonie) 콘서트홀에서 그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악보는 타악기와 플루트 전문 악보출판사인 프랑스의 출판사 알퐁스(Alfonce Production)를 통해 2018년에 출판되었다.

**글 |** 김진근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악보전문위원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THE BRIDGE COMPANY

# Chloe Jiyeong Mun

## 스크리아빈에서 슈만,
## 다시 스크리아빈

**2022. 11. 27. SUN 5PM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주관** THE BRIDGE COMPANY **후원** (재)설원량문화재단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예매**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6094-1001

THE BRIDGE COMPANY

예술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더브릿지컴퍼니 연주자 후원 안내

**더브릿지컴퍼니**와 동행하는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예술**에 **집중**하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길이 남을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브릿지컴퍼니**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후원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 정기후원

| | |
|---|---|
| 후원금액 | 월 1만원 이상 |
| 출금 | 매월 25일 약정 금액 / CMS 자동이체 |

▶ 후원해주신 금액은 법정기부금 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 더브릿지컴퍼니로 전달되며, 모든 금액은 투명하게 운용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정산 및 보고됩니다.

▶ 일시후원 혹은 단체 차원(법인 등)의 후원은 후원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후원 기부금 사용

- ☑ 더브릿지컴퍼니 아티스트 후원
- ☑ 음반제작비
- ☑ 연습실대관료
- ☑ 국내외항공비
- ☑ 홍보비용
- ☑ 해외체류비
- ☑ 각종 제반비용 등

## 정기후원 신청방법

전화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 후원 예우

공통혜택

- **특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등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아티스트 지정후원 가능
-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무료 증정
- 후원자 감사 문자 발송
- 더브릿지컴퍼니 뉴스레터 발송
- 후원금액별 예우 제공

* 정기후원을 시작하고 3개월 후 회원자격(1년)이 부여되며, 후원 중단 시 회원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 | |
|---|---|
| 1만원 이상 | 공통 혜택 |
| 3만원 이상 | 감사선물전달<br>더브릿지컴퍼니 기획공연 선예매 서비스 제공 |
| 5만원 이상 | 후원금액 3만원 이상 혜택 포함<br>기획공연 좌석제공(R석/1매)<br>기획공연 할인률 20%(R,S석/최대 2매) |
| 10만원 이상 | 후원금액 5만원 이상 혜택 포함<br>기획공연 좌석 제공(R석/2매)<br>기획공연 할인율 30%(R,S석/최대 2매)<br>기획공연 프로그램북 내 후원자 명단 기재 |
| 30만원 이상 | 후원금액 10만원 이상 혜택 포함<br>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br>후원자 이름을 담은 연주자 감사메시지 전달<br>더브릿지컴퍼니 웹사이트 내 후원자 명단 기재 |
| 50만원 이상 | 후원금액 30만원 이상 혜택 포함<br>기획공연 좌석제공(R석/4매)<br>기획공연 리허설 초대 (연 1회, 인원한정)<br>후원인들을 위한 연주회 및 리셉션 초청<br>(연 1회, 동반 1인 한정) |

www.thebridgekr.com/cms 후원문의) 02.6094.1094

## STAFF

**대표** 윤동진

**기획** 윤진성, 민다빈, 조정하, 이정현

**디자인** 장보화

**홍보** 인더케이브 견민정

www.thebridgekr.com The Bridge Company thebridge_classics